**<기독교 세계관 대본>**

* 김현욱 (서론, 창조 부분)

주제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먼저 고민했던 것은 옳은 세계관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옳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옳은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결코 저희가 자라온 환경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 깨달았고, 삶의 주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자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옳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개인의 고민과 문제일 수 있으나 좀 더 시야를 넓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세계관 관점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에 나가서 가질 수 있는 넓고 옳은 안목을 가지는 데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중 저희 팀원 중 한명이 외국에서 있던 경험과 또한 저는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종차별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시켜 이 성경적 시야의 안목을 넓히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부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 배워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배움을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째로 인종이 아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앞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그 내면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실을 따라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인종차별을 바라보는 창조적 관점은 사실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가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존중과 아낌,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저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배움은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말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의아해 할 수 있지만 공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책 표지 자체로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지만 그 표지만을 보고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볼 때 개개인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의 내면을 그 겉모습으로 결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내면은 겉 모습이 아닌 중심되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과 결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으며 차별을 하는 현상을 옳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조건없이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계속 인지를 해야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아무 것도 아닌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사랑의 섬김을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야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관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몸소 지키시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몸소 삶에서 실천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해줘야지’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 또한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야 함이라는 점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은 높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낮은 자에 있는 곁에 다가서셔서 믿음과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와 낮은 자를 섬기며 조건없음의 의미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권에서 지극히 작은자 낮은 자라 함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민족들이 낮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구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고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시기에서 우리는 극히 작은 자와 낮은 자를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자세를 낮추어야 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배움이 인종차별의 창조적 접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인종을 나눠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우리 삶의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개개인이자 인간이기에 서로를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통해 인종 차별의 시야를 사랑으로 허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히 작은자를 위해 섬기라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문화권에서 흑인, 황인종 차별 문제에 접근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인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하는 가를 창조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